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대학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법공양 페이지

###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문**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고 살아가면 한다면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 눈먼 거북이가 물 속에서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한 채 항상 허우적거리는데 거북이가 생각하기를, 세상에 나와서 바깥 구경도 못하고 항상 손발 같이 내려가는 물을 휘젓고 빠져가면서 이렇게 산대서야 이거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하고 환탄을 했더니, 그러니까 그 거북이도 수십 번을 진화해서 거북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보니까 참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죽어도 되긴 살아도 고만 이런 목숨을 살아도 될 하나, 물 밖도 구경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물 속에서 항상 이렇게 해매고, 그러다 보면 남한테 잡혀 먹히거나 하는 생명이 살면 될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선 손발같이 내려가는 물 속에서 그냥 뛰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뛰어 올라온 그 시각에 바로 뱀목이 떠내려가다가 탁 마주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격입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굴러놓고 또 거기다가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항상 굴러다가 어느 때에는 뜬금없이 뱀목을 만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뜬금없이 불성 기동이 불속 솟는다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하늘을 어떻게 구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 펄쩍 나오는 동시에 뱀목이 탁 만나서 올라서서 여유 있게 구경을 했더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눈뜨고 귀 열린 사람은 살기가 좀 여유가 있겠지만은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은 사는 데 여유가 없습니다. 눈 먼 거북이나 똑같은 허우적거리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만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건너지도 못할 걸 건너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나 코끼리를 비유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첫째, 자갈을 물러라. 둘째, 많은 식량을 욕심내지 마라. 즉 아무거나 먹지 마라 이 소리죠. 셋째, 길을 올바른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라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예전에는 소나 코끼리를 다스리고 길들이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인데 너무나 더디게 돌아가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즉각적으로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갈을 물러라 하는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고 길들이기 위해서 자갈을 물러게 했던 것입니다. 안으로 모든 걸 굴러보라, 이게 자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깥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저 쏟아붓는 말을 하는 거를 금지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으로 굴러놓지 않는다면 자기를 맞출 수 없으니까요.

밥을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안으로 공식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공식을 구하고 바깥으로 탐욕을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공식을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탐욕이나 욕망이 생기면 거기다 다 물러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구하라고 한 것이죠.

셋째는, 지금 현상세계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길을 올바른 들지 못해서 남의 밭에 농사 지어놓은 것을 망치게 한다면 그 얼마나 타인이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손해가 나는 일이지요. 이 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방편을

쓰되 야생마처럼 몽둥이로 때려줘라 이랬습니다. 야생 소처럼 그렇게 날뛰는 거를 두들겨 패라 이랬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채찍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길들이고 자신을 리드해나가고 자신을 이끌어 가는 데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

### 자신의 근본이 바로 주인공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 없는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이끌어 가는 보배인 자기 불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갈을 물러서 불성 기동예다가 묶어주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가다가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생각이 얼른 나게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공부라고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 주인공은 마술쟁이인지...

**문** 저는 부모님께서 구둑하고 계신 현대불교 신문을 우연히 접하면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기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고 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수행을 하지 않고 무조건 주인공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주인공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술쟁이인가요?

**답**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알맹이도 없습니다. 아니긴 하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맹이보다 붙여놔야 되니까 그건 알맹이입니다. 누가 대신 밝혀주는 일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뱀어 가는 것도 없습니다. 단 자기만이 자기를

자기만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를 다스려 상대를 돌로 보지 않고 모두를 이익되게 할 수 있으니...

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실권을 해 봐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10여 년을 그렇게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주인공을 부르며 된다는데 왜 나는 안되나 이렇게 급급해 하시지 마세요. 쉽게 그렇게 배우는 건 쉽게 없어지죠.

하루를 신문들 볼까봐서라도 이렇게 마음 공부해 나가고 있구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근본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체험해 나가신다면 아주 신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인공 주인

공과 관하는 것은 참나를 찾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이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든지 거짓 나인 현재의 중생 모습을 버리고 주인공인 참나를 찾게 되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장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욕심일지는 몰라도 현상에서 해탈을 하여 윤회 없는 완전함이 되고 싶습니다.

**답** 거짓 나가 따로 있어서 그것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는 대로 입력돼 있는 내 자생 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어

서 따진다면, 진짜 진정한 마음을 선장이라 하고 자기 욕심 속에 있는 그 의식의 생명들은 중생이라 하고 이 모습은 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만이 그 배에서 움직여지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비바람이 불고 뇌성벽력이 치는데도 그냥 무사히 타고 건너오기도 하고 건너갈 수도

면서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그대로 편안하게, 불가사의하다는 언어도 불지 않는 편안한 자유스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바깥에서 유전으로 오든, 안에서 인과로 인해서 벌어지든, 영계가 들고 안에서 일고 이러는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신경이 급박해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지친다든가, 이것은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단가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또 생활 속에서 가정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만이 그런 일들을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즉 말하자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놓고 거기서밖에 해결을 못한다 하는 믿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말입니다. 거기서밖에 해결을 못한다 하구선 딱 맡겨놓고 지켜보는 게 관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다 말씀해 놓으셔서 그대로 따르기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내가 부처님 줄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진리의 말을 들어도 계속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려가 생기고 불안증이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그 입력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한번 믿고 맡겨놓았다 해서 그 생각이 똑 끊어지듯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나를 지켜보면서 관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럼 관하면 뭐가 나오나?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듯이 다시 입력을 합니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옵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있는 자동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시험하면서 내 주체에 맡겨놓고 지켜본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기도 하고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용도가 오든 이렇게도 굴러고 저렇게도 굴러서 자기네가 지혜를 낳아서 작용하는 거지,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네 스승을 네가 찾아라 이겁니다. 네 스승을 스스로 찾는다면 그 안에서 집집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서 굴리는 도리가 지혜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을 한다면 자기가 담당하고 능를 해지고 지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인간의 자유스런 행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 얼마나 슬기롭고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 결혼생활에서의 수행방법

**문** 세속에 살면서 결혼을 하면 남녀가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애육이 윤회의 근본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부부관계를 하면 마음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청년 불자이나 마음공부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부부관계를 되도록 갖지 않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관계를 갖더라도 주인공을 믿고 관하면 자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가정에서 살면서 불교를 믿는 이들이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서 집에 있는 식구들을 굶주리게 하고 집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백일 아니라 천일 동안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하라는 것이지 그저 한다고 다룬 걸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애들은 이말이 되고 가정 파파가 오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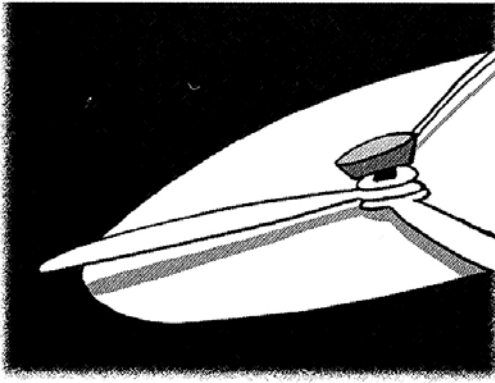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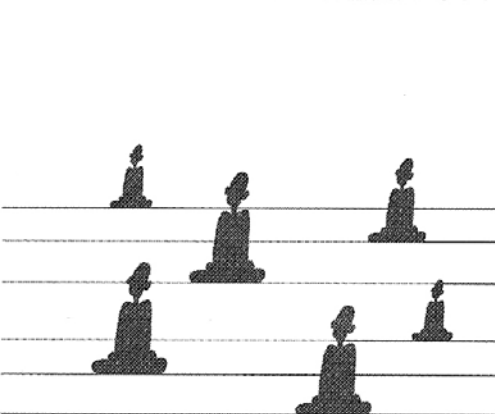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내가 부처인줄 모르고 생활하기에

지금 진리의 말씀 들어도 계속 믿지 못하는 생각 들고 염려와 불안에 시달려

### 거짓 나를 버려야 하는지...

**문** 어떤 명상단체에서는 나에게게 참나(부체)와 거짓 나가 있는데 거짓 나는 과거와 현재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이 쌓여서 만들어진 원래는 없던 것이었는데, 이 몸이 거짓 나를 진짜 자기인줄 착각하고 살고 있고, 이 거짓 나를 버리기만 하면 저절로 참나가 드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나를 버리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계를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을 찾는다는 것이 이 단계를 말하는 거짓 나를 버려 참나를 찾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즉,

은 그 자체,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통이 속에 지금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아가면서 짓는 선업 악업은 미래에 올 것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거는 지금 나오고 미래에 올 것은 현실에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게 연방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오는 그 업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 속,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연을 지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대로 나온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놓으면 미래에 받을 업도 없어지고 과거에 지은 것도 없어지는 까닭에, 모든 것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가 놓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공체(公體)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느님도 빠질 것도 없고 들여놓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유를 해

### 끝까지 믿고 관하세요

주인공은 내놓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부처인줄 모르고 생활하기에

지금 진리의 말씀 들어도 계속 믿지 못하는 생각 들고 염려와 불안에 시달려

### 거짓 나를 버려야 하는지...

**문** 어떤 명상단체에서는 나에게게 참나(부체)와 거짓 나가 있는데 거짓 나는 과거와 현재 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이 쌓여서 만들어진 원래는 없던 것이었는데, 이 몸이 거짓 나를 진짜 자기인줄 착각하고 살고 있고, 이 거짓 나를 버리기만 하면 저절로 참나가 드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나를 버리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계를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을 찾는다는 것이 이 단계를 말하는 거짓 나를 버려 참나를 찾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즉,

### 결혼생활에서의 수행방법

**문** 세속에 살면서 결혼을 하면 남녀가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애육이 윤회의 근본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부부관계를 하면 마음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청년 불자이나 마음공부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부부관계를 되도록 갖지 않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관계를 갖더라도 주인공을 믿고 관하면 자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